2015년 4월부터 바뀌는 제도

생활·건강	부담 증가	○ 65세 이상의 간병 보험료 - 월 578엔 인상하여 5,550엔(전국평균)
		○ 국민연금보험료 - 월 340엔 인상하여 15,590엔
		○ 국민연금 - 월 608엔 인상하여 65,5008엔 ○ 후생연금(부부인 경우(2인)) - 219,066엔 ⇒ 221,507엔
	부담 감소	○ 간병 서비스 이용 요금 : 평균 2.27% 인하 ○ 특별 양호노인 홈 이용 요금 : 6% 인하
	신제도	○ 육아 지원 신제도 도입 -「인정 육아원(보육시설)」확충을 통해 대기 아동 해소
		○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시행
세금	부담 증가	○ 경자동차 세율 인상 - 7,200엔 ⇒ 10,800엔(전년대비 1.5배)
		○ 에코카 감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
		○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: 전년대비 1.5배
	부담 감소	○ 결혼·육아자금 증여세 - 20세 이상 자녀나 손자 1인당 최대 1,000만 엔까지 비과세
		○ 후루사토(고향)납세 : 연간 5개 지자체까지 확정 신고 불요
		○ 법인세실효세율 인하 : 34.62% ⇒ 32.11%
환경·에너지		○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는 광역적 운영추진기관 발족
		○ 기업용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인하 - 1kw 당 32엔 ⇒ 29엔
		○ 프레온 가스 배출 억제법 시행
기업		○ 야마토운수 신서비스「구로네코DM편」,「네코포스」,「택배콤팩트」 개시 : 택배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물건 크기 축소화 - 구로네코 DM편 : 광고 관련 우편물 배달 - 네코포스 : 우편함에 들어가는 사이즈 물건 배달, 수신확인 연락 - 택배 콤팩트 : 작은 박스에 들어가는 사이즈 물건을 배달
		○ 가전 업체들이 가전제품의 폐기처리 요금을 10~20% 안하
		○ 긴테츠그룹홀딩스 출범 - 긴키 지방의 철도, 부동산, 호텔, 유통사업 등을 총괄
		○ 다케다약품공업 Christophe Weber 사장이 CEO 겸임
		○ 소프트뱅크모바일 등 소프트뱅크 계열 4개의 통신사 합병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5.3.31.)

< 2015년도 세제개정안 추진일정 >

실시 시기	내 용	목 적
2015년 7월	○ 부유층에 출국세 부과	과도한 절세 방지
10월	○ 해외에서 배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소비세 부과	일본국내 기업과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
2015년도 내	○ 대기업의 본사 또는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세	지방 활성화
2016년 1월	○ 주니어 NISA 창설	젊은 세대에게 자산 이전 촉진
4월	**○ 법인실효세율 감세** **- 32.11% ⇒ 31.33%**	수익성이 큰 기업의 성장을 지원
2017년 4월	○ 소비증세 - 8% ⇒ 10%	사회보장재원의 확보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5.4.1.)

끝.